



The 79th Annual WESTERN VETERINARY CONFERENCE

이민정 해마루 소동물임상의학연구소

해마루 동물병원의 주선으로 태어나 처음으로 해외에서 열리는 학회에, 미국이라는 곳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해외라고는 일본밖에 가본적이 없는 터라 10시간 이상씩 비행기를 타고 머나먼 미국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도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없기에 미국행을 결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는 학회 개최 일로부터 6개월 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 동안에 “미국비자”를 취득해야 했습니다. 미국비자 취득하기가 어렵다고 듣긴 했지만 뭐가 그렇게 까다롭고 준비해야 할 것이 많은지... 확실한 직장 증명, 월급 수준, 통장 잔고는 얼마 이상... 그것도 단순한 여행 비자를! 대사관에 가면 질문도 까다롭다고 해서 줄 서서 기다리면서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직업이 “수의사”라는 것을 확인하더니 하는 질문,

“어떤 동물을 치료합니까?” / “개나 고양iy요”

“당신도 개나 고양이를 기르십니까?” / “네, 강아지 길러요”

“즐거운 여행되세요!”

그래서 어렵게(?) 미국 여행 비자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2월 15일 오후. 병원에서 같이 근무하는 내과 담당 김진경 선생님과 저와 같이 야간에 교대로 근무하는 서지민 선생님과 함께 드디어 미국을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15시간 정도의 비행을 어떻게 견딜까 걱정을 많이 했었지만, “잠자기”가 주특기인 저에겐 약간 허리가 아프고 엉덩이가 욱씬거리긴 했지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자고 잠깐 일어나서 기내식 먹고 다시 자다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내려 라스베가스행으로 갈아타서 잠깐 자고 일어나니 라스베가스에 와있었습니다. 그때가 미국 날짜로 15일 오후였고 학회는 18일부터였습니다.

우리 일행은 Mandalay bay 호텔에 묵으면서 주말 내내 라스베가스 시내와 그랜드 캐년 관광을 하였습니다. 화려한 불빛과 다양한 모습의 호텔들! 정말 세계 각지의 일부를 그대로 옮겨다 놓은 것 같았습니다.

당시 주말에는 NBA 올스타전이 열리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거리에는 사람들로 가득 차있었으며 New York New York 호텔앞에서 서있는 자유의 여신상과 맞은 편 MGM 호텔에 있는 사자상도 농구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학회 전날 저녁 우리는 빈방이 없는 관계로 학회가 열리는 장소인 Mandalay bay 호텔을 뒤로 한 채 New York New York 호텔로 숙소를 옮겼습니다.

다행히 tram이 있어 학회기간 동안 큰 어려움 없이 왕래할 수 있었습니다. 잠이 들기 전 학회 강의 program 목록을 보면서 듣고 싶은 강의를 너무 많아 한참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미국 학회는 어떻게 하는 기대 반, 과연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반으로 학회 첫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학회라고는 학부시절에 교수님을 따라 서울대에서 열렸던 임상수의학회에 간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모든 학회가 정장을 입고 격식을 차리는 다소 엄숙한 분위기일 꺼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상했던 바와는 달리 학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대부분 캐주얼한 차림이었으며, 기다리는 동안이나 점심시간에 앉을 자리가 없는 경우에는 아무 곳에서나 털썩 주저 앉아있는 모습이 처음에는 다소 낯설었지만 오히려 이런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저 또한 흑시나 해서 가져온 정장은 계속 장롱에만 걸어 놓게 되었습니다.

학회는 크게 3곳에서 열리고 있었습니다. 듣고 싶은 발표에 따라 3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거나 때로는 복도로 연결되어 있는 다른 호텔까지 한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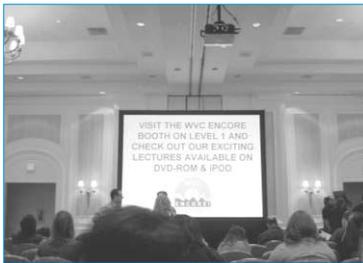
학회에 참석하는 내내 맘에 들지 않는 점이 딱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번째로 room에는 책상 없이 의자만 있다는 점. 원래 악필이긴 하지만 무릎에 대고 필기를 하려니까 글씨는 더 날라가고 허리도 아팠습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처럼 커피나 녹차는 제공해주는 걸로 알았는데, 맹물만 공짜로 제공된다는 점.

첫날에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맹물만 마셔댔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학회장 들어오기 전에 미리 스타벅스 커피 큰 컵 하나 사서 들고 오는 것이 일과 중 하





나가 되었습니다.

저는 발표 목록 중 주로 응급이나 중환자 관리와 관련된 강의를 골라 들었습니다.

예상대로 저는 강의의 모든 내용을 알아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자주 쓰는 의학용어조차도 제대로 된 발음으로 말할 경우 마치 모르는 단어처럼 들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행히 power point slide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용 파악이 가능했습니다.

학회 기간 내내 많은 강의를 들었지만 그 중 인

상 깊었던 강의들에 대해 간략히 기술해보려 합니다.

우선 제일 처음 들었던 강의인 “inotropic 제제의 임상적인 사용” 시간에는 수축기압, 확장기압, 중심동맥압등이 의미하는 바와 함께 저혈압이 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제제들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dobutamine, dopamine, ephedrine, phenylephrine, epinephrine 등이 있는데 강의하는 분은 이 중 ephedrine이 가장 효과적이면서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본원에서는 주로 dobutamine으로 쓰고 있으며 아직 ephedrine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제제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사용해볼 예정입니다.

고양이의 거대결장에 대한 강의에서는 수술적인 교정법의 종류와 함께 최근 개발된 biodegradable ring anastomosis device (Valtrac, Kendall Company)를 소개하였습니다.

이 autosuture device는 결장 절제 후 내장 크기가 다른 결장끼리의 연결을 용이하게 해주는 기구입니다.

앞으로 고양이 환자 수가 더 많아질 것으로 고려한다면 수술적인 교정법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구의 사용도 시도해볼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Neurology 강의에서는 동영상 통해 환자의 신경증상을 보여주면서 신경계 검사를 통해 병변을 국소화 시킨 뒤 영상진단을 통해 진단한 증례등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말이나 글로만 접하는 여러 형태의 신경증상들을 동영상으로 직접 볼 수 있었던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앞으로는 특이한 병변에 대한 사진 촬영뿐 아니라, 이상 행동이나 증세에 대한 동영상 촬영도 적극 활용하면 이후 학술자료 이용에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응급 및 중환자 관리에 대해 들었던 여러 강의에 대해 종합해 볼까 합니다.

강의 내용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문구는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세포에 산소를 주는 일이다!” 였습니다.

즉, 환자 관리 및 처치에 있어 모든 과정의 시작과 목적은 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세포에

산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혈액 순환, 호흡 상태, 영양 상태등과 같이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겉에서부터 몸속의 상태까지 세세하게 확인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것이 환자 관리의 주목적이라는 것을 모두 포함한 짧은 문구였습니다.

모니터링 해야 하는 항목 별로 구체적인 사항과 방법 및 그에 맞는 처치법들을 들으면서 ‘이 많은 것들을 파악해야 하는구나, 절대로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다 확인해야 한다!’ 라고 굳은 결심을 했었지만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일을 하고 있을 때에는 자꾸만 눈에 확연히 보이는 부분만 보고 그 외의 것들은 지나쳐 버리기가 일쑤인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또 한가지 기억에 남는 문구는 “pain kill the patient!” 입니다. 진통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늘 morphine이나 fentanyl patch 등이 언급되는데 그럴 때 마다 잠시 펜을 놓고 있어야 하는 실정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나라에도 일반적인 진통제로 효과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환자들이 정말 많은데...

강의 중 Slide를 통해 나오는 중환자들의 모습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IV 카테타를 장착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환자들이 다 정석대로 삭모 후 카테타를 장착하고 그 위에 얇은 붕대와 코반을 감고 있었습니다.

물론 병원에서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때론 시간이 없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삭모도 안 하고 장착 후 taping만 간단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고 때문에 오염되어 피부염이나 정맥염이 생겼던 일들을 반성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나 중간에 시간이 날 때에는 전시회 구경을 하였습니다. 처음 보는 신기한 기구들이 많았는데 그 중 꼭 가지고 싶은 것은 바로 “critical care jerry”라는 실습용 인형이었습니다.

IV 카테타 장착 연습을 위한 혈관 대용물과 함께 혈액을 나타내는 빨간액체도 주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관튜브 삽관, 심폐소생술, 붕대 연습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인턴선생님들을 위해 이런 종류의 실습을 하고 있지만 매번 살아있는 동물로 하기도 힘들고, 또 사체가 늘 있는 것도 아닌 실정으로 볼 때 이런 인형 하나만 있으면 언제든지 연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문제는 200만원이 넘는 가격! 그래도 매번 실습 때마다 사용하고 아무 때나 연습하면 본전은 뽑지 않을까 생각되어 구매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 이번 학회 참석은 첫 미국 여행, 첫 해외 학회 참석이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마냥 집 아니면 병원 안에서의 생활이 전부인 저에게는 새로운 문화와 지식을 접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학회 기간 중에 응급 처치에 관한 lab이 있었는데 등록이 마감되어 들을 수 없었던 것이 가장 아쉬운 점이며 이번 기회를 통해 응급과 중환자실 관리에 있어 좀 더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병원을 비우는 동안 저희 대신 고생하신 병원 식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 글을 마칩니다. 